주간말씀묵상

"보이지 않는 안내자" (룻기 2:1-7)

2019. 3. 17 (주) NO.11

_____교구 _____구역 성 명【 】 점 수 점

들어가는 말

한번 갔던 길을 다시 찾아 간다면 잘 찾을 자신 있는가? 혹시 길눈이 어두운 것은 아닌가?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니다. (룻 2:1-7)

1.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3.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5.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6.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1.보아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1절)

=>

2.룻과 보아스는 서로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3-4절)

=>

3.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2,7절)

=>

4.나오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룻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5.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통로입니까?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보고, 또 결단도 해봅시다.

=>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디에 있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옵소서.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계획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또 인생을 맡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